

Global Macro Team

허진욱 Chief Economist
james_huh@samsung.com

정성태 Senior Economist
sungtai.chung@samsung.com

양지성 Economist
jjsung.yang@samsung.com

김종호 Economist
jongho.keum@samsung.com

구민정 Economist
mj.gu@samsung.com

한성민 Research Associate
sungmin0108.han@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Week Ahead: 6월 셋째 주

6월 FOMC Preview: A longer pause, not a hi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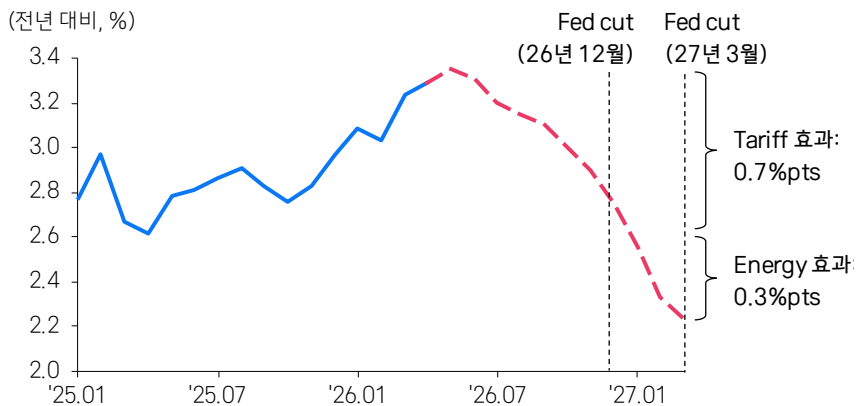
- 현재의 정책 금리 수준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에 좋은 위치임을 강조할 것. 올해와 내년 각 1회씩 인하에서 올해 동결-내년 2회 인하기로 dot-plot 변화 예상
- 신임 워시 의장은 향후 충분한 시간과 내부 논의를 거쳐 Fed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B/S 정책에 대한 framework 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힐 전망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처음 주재하는 6월 FOMC(16~17일 예정)에서는 동결이 확 실시되는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올해와 내년 dot-plot의 변화와 워시 의장의 Fed 개혁 방향에 대한 언급 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 FOMC에서는 향후 금리 결정의 양방향성을 보다 강조하는 가운데, 현재의 동결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워시 의장도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향후 충분한 시간과 내부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Fed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B/S 정책에 대한 framework 변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6월 FOMC 결과는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무난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Easing bias 삭제와 headline 물가 상향 조정:** 6월 FOMC 성명서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정도와 시점을 결정하는데, 지표 흐름, 전망 변화와 리스크의 균형을 고려할 것”이라는 기존 easing bias 문구 삭제 예상. 이는 이미 지난 4월 FOMC에서 3명이 삭제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냈고, 에너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 한편, 경제전망(SEP)에서는 성장률과 실업률, 핵심 인플레이션 전망은 대체로 기존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유가 급등을 반영하여 올해 말 headline PCE 물가 전망이 기존 2.7%에서 3.5%로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27~28년 말 headline 및 핵심 물가 전망치는 기존 2.2%와 2.0%가 그대로 유지되어 내년 중 물가 정상화 전망이 여전히 FOMC내 컨센서스임을 확인시켜줄 것

(다음 페이지에 계속)

미국 핵심 PCE 인플레이션 및 Fed 금리 전망: Terminal rate 3.25% 유지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삼성증권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 **올해 동결, 내년 2회 인하로 dot-plot 변화 예상:** Dot-plot의 경우, 기존 올해와 내년 각 1회씩의 금리 인하 전망이 올해 동결-내년 2회 인하로 변화 예상. 이는 호르무즈 봉쇄가 지속되면서, 유가 급등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 다만, 내년 상반기 중 관세 및 유가 급등 효과가 대부분 사라지면서 종립 수준을 향한 추가 금리 인하 기조가 재개될 것임을 확인시켜줄 것. 일부 매파들의 경우, 올해 금리 인상의 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수는 최대 3~4명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다. 만약 당사 및 시장 예상과 달리 연내 1회 인상이 median이 될 경우, 실제 인상 여부와는 별개로 단기적으로 시장 충격 요인이 될 것

당사는 향후 추가 2회 인하(올 12월과 내년 3월, terminal rate 3.25%) 전망을 유지하는데, 이는 6월 중미-이란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의 점진적이지만 추세적인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10일 발표된 미국 5월 소비자물가는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core로의 물가 충격 전이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앞서 발표된 5월 고용 지표에서도 신규 고용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전년 대비 3.4%)이 물가목표 2%에 상응하는 수준(약 3.5~3.8%)에 미치지 못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wage-price spiral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6월 들어 이란 사태 합의 도출 기대가 재차 높아지면서, 미국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점 대비 약 20bp 정도 하락하면서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약화시킨다. 물론, 향후 유가의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경우, Fed의 첫 인하 시점이 당사가 예상하는 올 12월보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관세와 유가 급등의 물가 상승 효과(각각 약 +70bp와 +30bp 내외로 추정)를 감안할 때, 늦어도 내년 3월에는 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임 워시 의장은 FOMC 성명서 문구나 dot-plot 같은 forward guidance 제공이 정책 결정의 유연성을 약화시키고, 통화정책 운신의 폭을 축소시킨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FOMC 참여자들의 과도한 외부 활동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Fed가 비밀주의를 탈피하고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버냉키 의장 때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forward guidance는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축소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금리 변동성과 term premium을 낮추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주요 연구 논문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충격은 위기 상황에서 정책금리가 제로수준까지 인하될 경우, forward guidance는 매우 파워풀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작동해왔다.

따라서, 만약 워시 의장이 forward guidance를 없앨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확대는 금리 변동성과 함께 term premium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불확실성 확대 요인은 이전보다 소수 의견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트럼프 당선 이후 파월 의장의 임기 중에도 소수 의견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FOMC내 컨센서스 형성을 중시했던 파월과는 달리, Fed의 개혁을 추진하려는 워시의 스타일상 소수 의견의 빈번한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경제전망 수정 및 dot-plot이 제시되는 3, 6, 9, 12월 FOMC에서만 기자회견을 했지만, 2019년부터는 연간 8회인 모든 FOMC에서 기자회견을 제공해 왔다. 이는 기자회견이 있는 FOMC에서 주로 금리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bias를 없애기 위함이다. 따라서, 만약 기자회견을 다시 4회로 줄일 경우, 기자회견이 없는 FOMC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워시 의장도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향후 충분한 시간과 내부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Fed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B/S 정책에 대한 framework 변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6월 FOMC 결과는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무난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진욱)

Preview

주요 지역별 정책 및 경제 지표 Preview

미국: 다음 주에는 5월 신규주택 착공 및 허가 건 수(16일), 소매판매와 6월 FOMC(17일)가 예정되어 있다. 5월 신규주택 착공 및 허가 건 수는 각각 전월 대비 -2.2%와 -0.2%로 전반적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5월 전체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4%로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판매도 전월 대비 0.4%증가하여,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 전망이다. 한편, 6월 FOMC에서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와 내년 각 1회씩 인하 전망이 올해 동결-내년 2회 인하로 dot-plot이 변화할 전망이다. 전반적인 6월 FOMC 결과는 당사 및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무난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다음 주에는 5월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16일)가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의 5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4.3%(4월 4.1%)로 예상된다. 이번 주 발표된 중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19.4%로 시장 예상(15.0%)를 상회했으나 증가의 절반은 반도체 및 부품이며, 5월 주요 20개 항구의 물동량이 전년 대비 -1.6%로 부진했고, 4월 소매판매가 0.2%에 그쳐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정자산투자(누적, 명목)는 전년 대비 -2.3%, 부동산 투자는 -14.0%로 전망한다. 다만, 투자재의 디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투자증가율은 2% 내외로 추정된다. 아울러,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0%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이구환신 정책으로 자동차, 가전 등의 내구재 판매가 크게 증가한 기저효과 영향이다. 실제로 4월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1.8%였다.

일본: 다음 주에는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16일)가 예정되어 있다. 당사는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에서 25bps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기존 7월에서 수정). 다만, 이후 정책금리 전망은 6개월마다 인상, terminal 1.5%를 유지한다. 한편, BOJ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 국채매입 축소 정책(매분기 2천억씩 축소하여 '27년 1Q에는 매월 2.1조엔 매입)을 종료할 전망이다. 이는 BOJ에 크게 의존했던 초장기 국채시장의 수급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만기가 도래한 국채 상환금액만으로도 연간 40~50조엔 규모에 달해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Preview

글로벌 금융시장: 미-이란 간 종전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가 재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WTI 기준 유가가 85달러 내외까지 하락했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4.50% 아래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주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반영한 것이지만, Fed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완화도 일부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다음 주 6월 FOMC에서는 향후 금리 결정의 양방향성을 보다 강조하는 가운데, 현재의 동결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Dot-plot의 경우, 기존 올해와 내년 각 1회씩의 금리 인하 전망이 올해 동결-내년 2회 인하로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호르무즈 봉쇄가 지속되면서, 유가 급등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 관세 및 유가 급등 효과가 대부분 사라지면서 중립수준을 향한 추가 금리 인하 기조가 재개될 것임을 확인시켜줄 것이다. 일부 매파들의 경우, 올해 금리 인상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수는 최대 3~4명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다. 만약 당사 및 시장 예상과 달리 연내 1회 인상이 median이 될 경우, 실제 인상 여부와는 별개로 단기적으로 시장 충격 요인이 될 것이다. 워시 의장도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향후 충분한 시간과 내부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Fed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B/S 정책에 대한 framework 변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6월 FOMC 결과는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무난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할 때, 미-이란 간 합의 도출 시, 글로벌 증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했던 유럽 시장의 catch-up이 예상된다. 또한, 유가 하락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의 둔화로 주요국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세와 달러화의 약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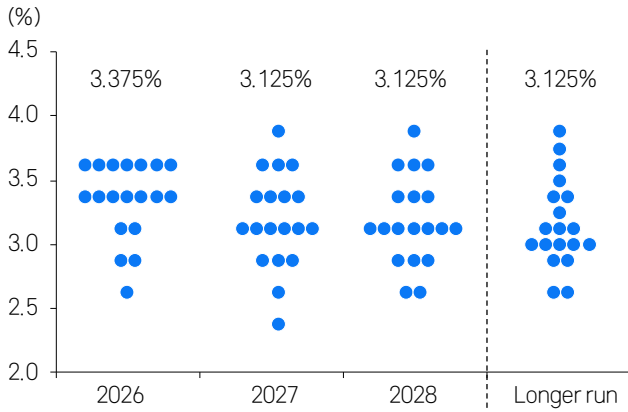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Ahead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전기	영향	비고
정책 지표							
일본	6월 16일	6월 BOJ 금융정책결정위원회 회의	-	-	-	-	• 기준금리 25bp 인상 전망
미국	6월 18일	6월 FOMC	-	-	-	-	• 기준금리 3.75%로 동결 전망
경제 지표							
미국	6월 15일	6월 NAHB 주택시장 지수	지수	36.0	37.0	상	
	6월 16일	5월 주택 착공	전월 대비	-2.2%	-2.8%	상	
		5월 건축허가	전월 대비	-0.2%	4.4%	상	
	6월 17일	5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4%	0.5%	상	• 유가 급등에도 양호한 흐름 유지 전망
유로존	6월 15일	4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3%	0.2%	상	
독일	6월 16일	6월 ZEW 전망 지수	지수	-7.5	-10.2	중	
		6월 ZEW 동향 지수	지수	-77.0	-77.8	중	
중국	6월 16일	5월 소매판매	전년 대비	0.0%	0.2%	상	• 작년 내구재 판매 급증 기저효과 영향 받을 전망
		5월 산업생산	전년 대비	4.3%	4.1%	상	• 항구 물동량 및 내수 부진으로 전월과 유사 전망
		5월 고정자산 투자(누적)	전년 대비	-2.3%	-1.6%	상	
		5월 부동산 투자(누적)	전년 대비	-14.0%	-13.7%	상	
일본	6월 19일	5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1.5%	1.4%	상	
		5월 핵심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1.4%	1.4%	상	
한국	6월 19일	5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	6.9%	상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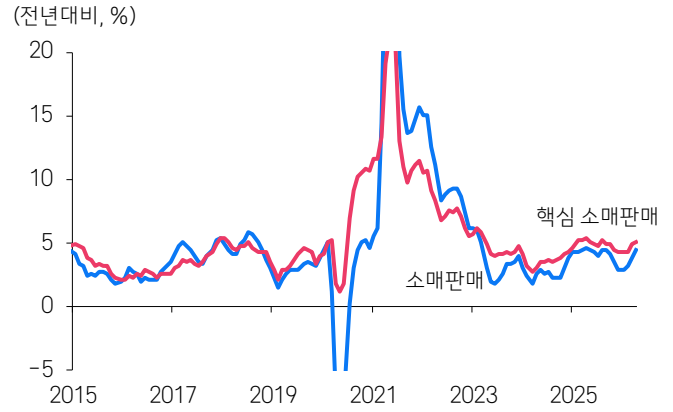
>> 차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

3월 FOMC dot-p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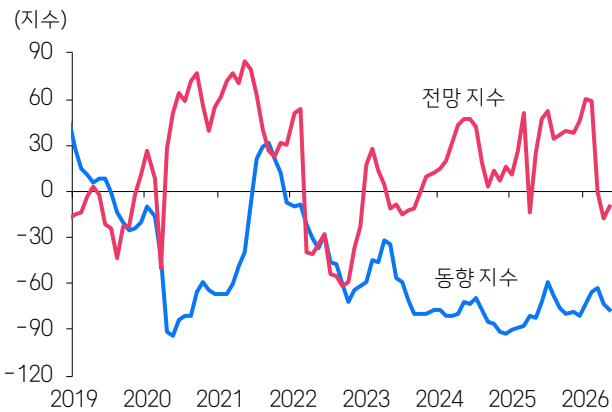
참고: 숫자는 median 기준
자료: Federal Reserve

미국 전체 및 핵심 소매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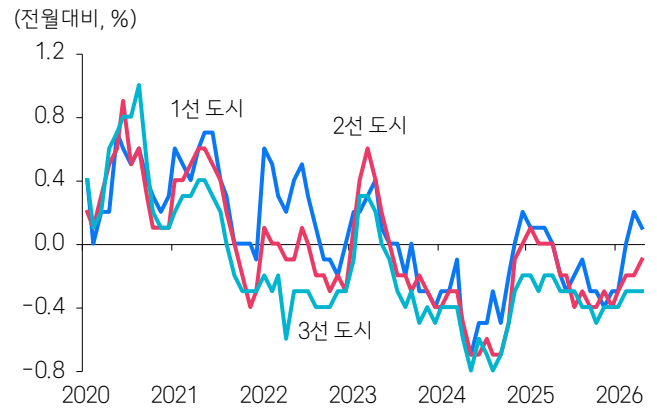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독일 ZEW 동향, 전망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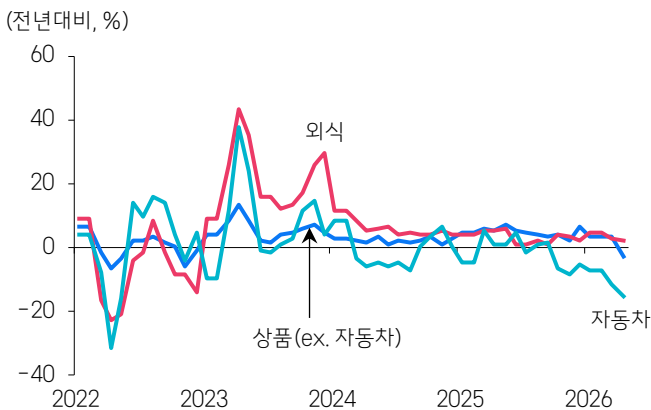
자료: Leibniz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중국 1, 2, 3선 도시 주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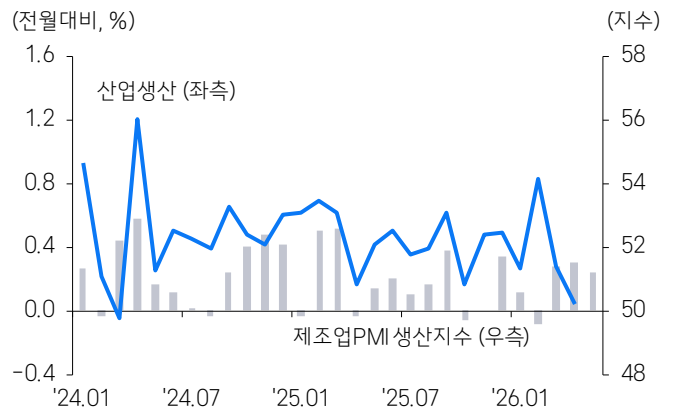
참고: 70개 주요 도시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소매판매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삼성증권

중국 산업생산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Review

주요 Event와 시사점

미국: 이번 주에는 5월 CPI(10일)와 5월 PPI(11일)가 발표되었다. 미국 5월 CPI의 headline과 core는 전월 대비 0.5%와 0.2%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Bloomberg)과 부합했다. 세부지표를 보면 유가 상승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은 7.0%(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상품은 -0.1%,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는 0.3%를 기록했다. 특히, 교통서비스는 항공료가 2.7% 증가했음에도 자동차 보험과 렌탈 가격이 하락하면서 -0.6%에 그쳤다. 한편, 5월 PPI는 전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6.5%를 기록했다(시장 예상은 각각 0.7%와 6.4%).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10.7%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한 영향이다. 한편, 식품, 에너지, 무역을 제외한 PPI는 전월 대비 0.8%를 기록하면서 4월(0.5%) 대비 상승했는데 이는 포트폴리오 관리(4.9%), 데이터 프로세싱(1.2%) 등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

유럽: 이번 주에는 ECB 6월 통화정책회의(11일) 결과가 발표되었다. ECB는 당사 및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다(예치금리 2.25%). 가격 상승이 에너지 외 부문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ECB 내 금리 인상 요구를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선 5월 소비자물가(HICP) 데이터에서 핵심 물가와 서비스 물가 모두 2026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ECB의 물가 및 성장 전망 또한 변경되었다. 물가 전망은 2026년, 2027년 각각 +0.4%p, +0.3%p 조정된 3.0%와 2.3%로 제시되었으며 성장 전망은 2026년, 2027년 모두 -0.1%p 조정된 0.8%와 1.2%로 제시되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인상이 보험성 인상이 아니며,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물가 둔화 시그널을 확인하기 전까지 추가 인상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사는 9월 추가 인상 후 동결을 전망한다.

중국: 이번 주에는 5월 수출입(9일)과 5월 물가지표(10일)가 발표되었다. 중국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19.4%로 시장 예상(15.0%, Bloomberg)과 4월 실적(14.1%)을 상회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은 글로벌 시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110.9%, 이하 전년 대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66.1%)의 수출 확대로, 전체 수출 증가의 절반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차 수출에 힘입어 자동차(39.3%)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기저효과와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휴대폰(44.3%)도 양호했다. 지역별로는 아세안(24.3%)이 반등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 영향으로 한국(42.1%)이 증가했으며, 미국은 기저효과도 겹치면서 35.4%를 기록했다. 5월 수입은 27.4%로 시장 예상(26.0%)을 소폭 상회했다. 이는 주로 수입 가격 상승의 영향이다. 석유 수입물량은 전년 대비 -29.0%에 그쳤으나 수입액은 15.3% 증가했고, 반도체도 수입물량은 4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수입액은 68.0% 증가했다. 아울러, 구리광석 수입도 34.0%를 기록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2%, 생산자물가는 3.9%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각각 1.3%와 3.9%)과 부합했다. 물가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 확인된다. 소비자물가 세부지표 중 휘발유 가격은 23.5% 상승하며 전체 상승에 0.66%p 기여했고, 금장식류도 39.0% 상승하며 0.17%p 기여했다. 반면, 식품 가격은 1.7% 하락했으며 핵심 소비자물가는 1.1%로 4월(1.2%) 수준을 유지했다. 5월 생산자물가도 비슷했다. 유가 상승으로 정유(18.4%), 화학(12.7%) 등 업종의 생산자 가격이 상승했고, 비철금속(24.0%), 석탄(10.0%) 업종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공급측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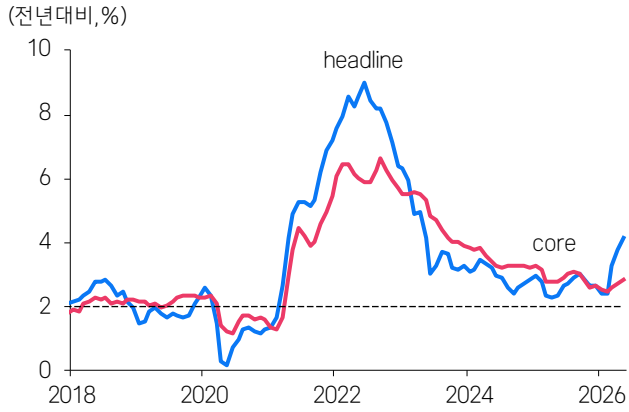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Review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실제치	전기	예상 대비	비고
정책 지표								
유로존	6월 11일	6월 ECB 통화정책회의	-	-	-	-	-	• 금리 25bp 인상. 9월 인상 후 동결 전망
경제 지표								
미국	6월 9일	5월 NFB 소기업 낙관지수	지수	96.0	95.3	95.9	Below	
		5월 기준주택매매	전월 대비	1.1%	3.2%	0.7%	Above	
	6월 10일	5월 CPI	전월 대비	0.5%	0.5%	0.6%	In-line	• 유가 상승의 영향은 제한적
		5월 Core CPI	전월 대비	0.3%	0.2%	0.4%	Below	
	6월 11일	5월 PPI	전월 대비	0.7%	1.1%	1.1%	Above	• 물가 상승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기인
	6월 12일	6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지수	46.0	-	44.8	-	
유로존	6월 8일	6월 Sentix 투자자신뢰지수	지수	-14.0	-13.4	-16.4	Above	
독일	6월 8일	4월 공장주문	전월 대비	-2.0%	-3.8%	4.5%	Below	
	6월 9일	4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4%	0.4%	-0.1%	In-line	
중국	6월 9일	5월 수출	전년 대비	15.0%	19.4%	14.1%	Above	• AI 관련 품목 수출 확대로 전망치 상회
		5월 수입	전년 대비	26.0%	27.4%	25.3%	Above	
	6월 9일	5월 신규 위안화대출(누적)	십억 위안	9,040.0	-	8,590.0	-	
		5월 총 사회용자 규모(누적)	십억 위안	17,150.0	-	15,450.0	-	
		5월 M2	전년 대비	8.6%	-	8.6%	-	
	6월 10일	5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3.9%	3.9%	2.8%	In-line	
5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1.3%	1.2%	1.2%	Below	• 휘발유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 견인	
일본	6월 10일	5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5.6%	6.3%	5.3%	Abov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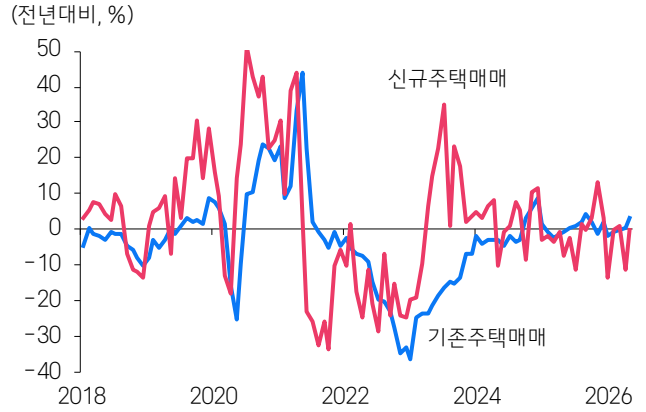
>> 금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미국 CPI: Headline vs.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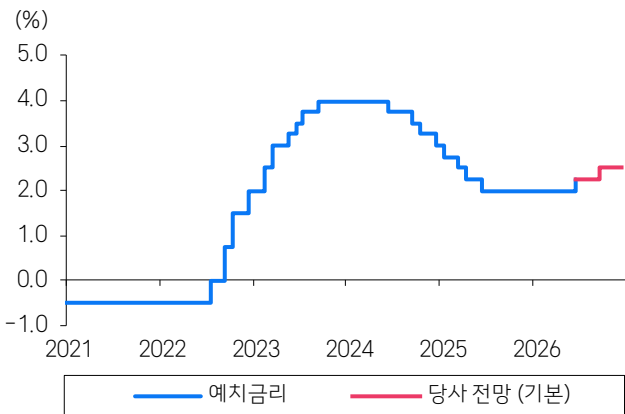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미국 기존주택매매 vs. 신규주택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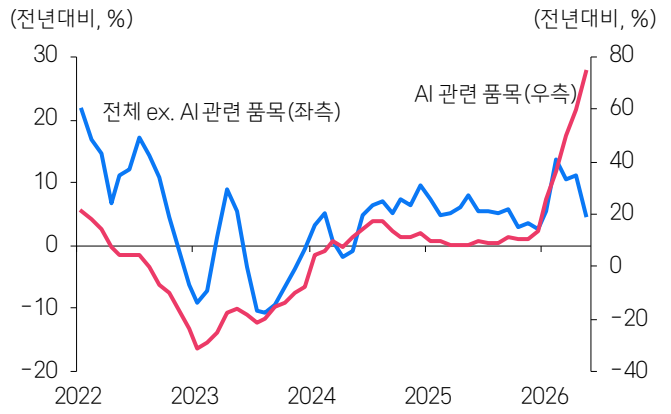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ECB 정책금리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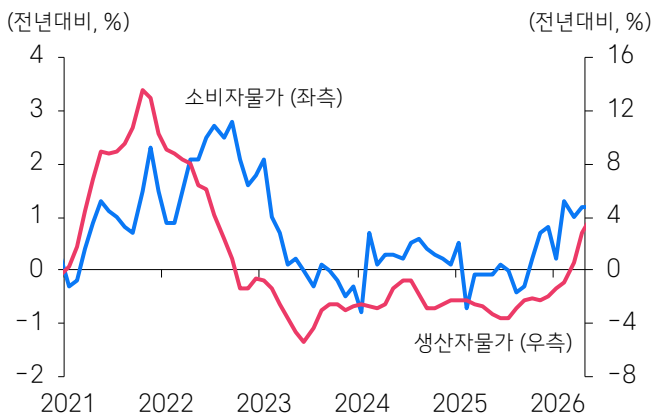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entral Bank, 삼성증권

중국 AI 관련 품목 수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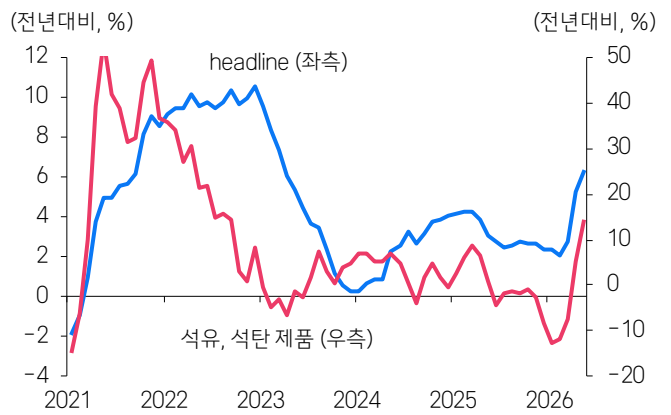
참고: AI 관련 품목은 반도체와 컴퓨터 및 부품의 합, 3개월 이동평균
자료: 중국 해관총서, 삼성증권

중국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일본 생산자물가: headline vs. 석유, 석탄 제품



자료: BO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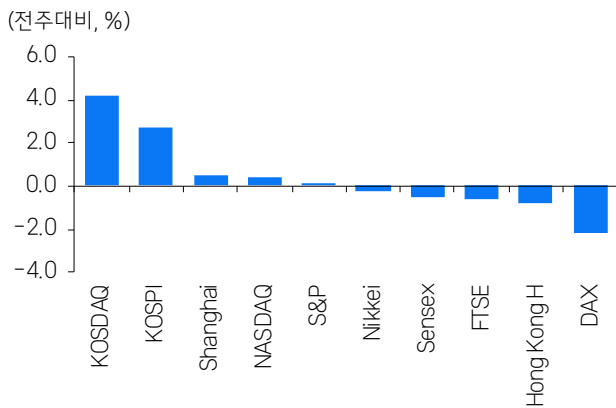
금융시장 동향 (6월 12일 13시 기준)

주식시장: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혼조세를 나타냈다. 한국 증시는 이란 전쟁 불확실성에 따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으며, 주 후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으로 마무리했다(코스피 전주 대비 2.8%). 미국 증시는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와 중동 불확실성으로 하락 압력을 받았다. 다만, 이후 미-이란 종전 합의 기대로 S&P500과 나스닥은 반등하여 각각 0.1%, 0.4%를 기록했다. 유럽 증시는 ECB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반도체주 중심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유로스톡스50은 0.1% 하락했다.

외환시장: 이번 주 달러 인덱스는 100.1에서 99.8로 소폭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달러는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됐던 공습을 취소했으며, 미국과 이란간 논의 내용이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란 측 언론 또한 미국이 이란이 제안한 양해각서 원안을 수용함에 따라 이란 지도부도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1,560원에서 1,521원으로 하락하며 달러 대비 원화 강세가 부각되었다. 미-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가 확산되며 증시가 상승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 압력이 완화된 영향이다. 한편, 이번 주 달러 대비 원화가 2.6%, 위안화 0.3%, 유로화 0.4%, 엔화는 약보합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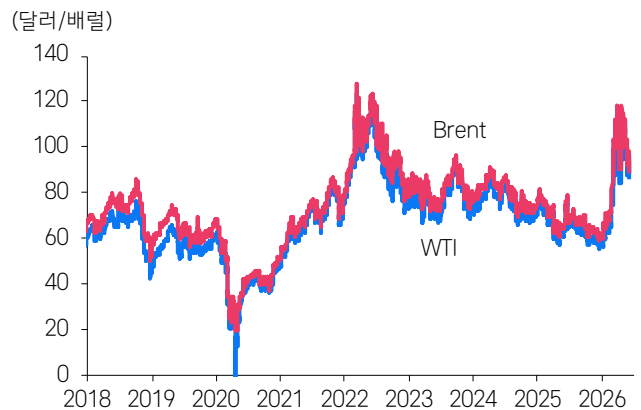
원자재: 이번 주 WTI는 \$90.5에서 \$86.9로, 브렌트는 \$93.1에서 \$89.4로 하락했다. 글로벌 유가는 협상 전개에 따라 변동성을 보였다. 주중에는 협상 난항과 함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상승하기도 했으나, 11일 저녁(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히면서 하락으로 돌아섰다. 그는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언급했고,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한 이란과의 협의가 최고지도부 승인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예정됐던 대이란 공습 및 폭격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주요국 주식시장 등락



참고: 6월 12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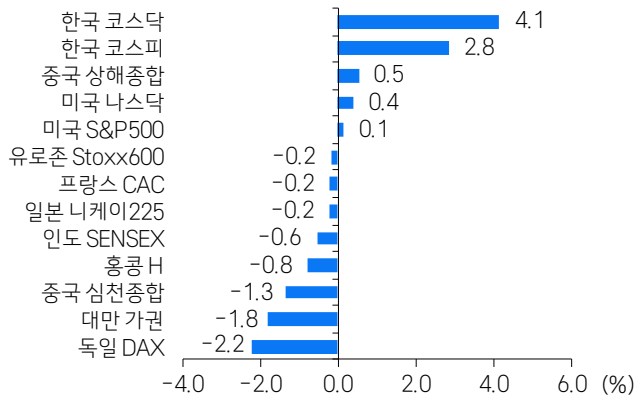
국제 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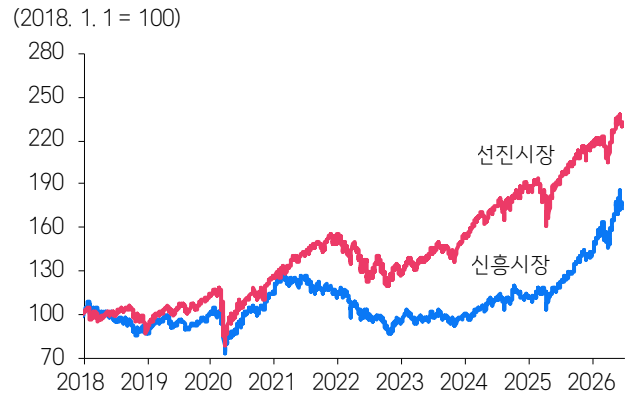
»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증시 performance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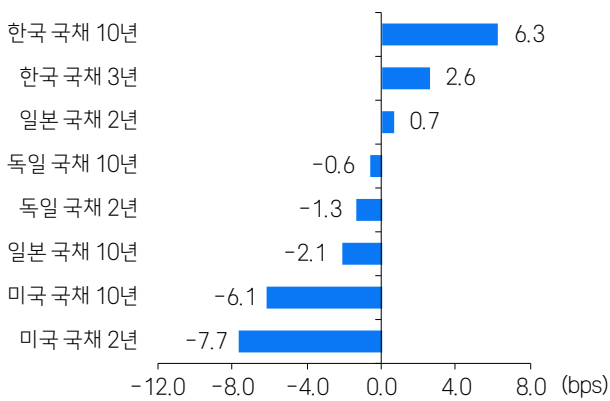
참고: 6월 12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MSCI 선진시장 vs. 신흥시장 (Local Curr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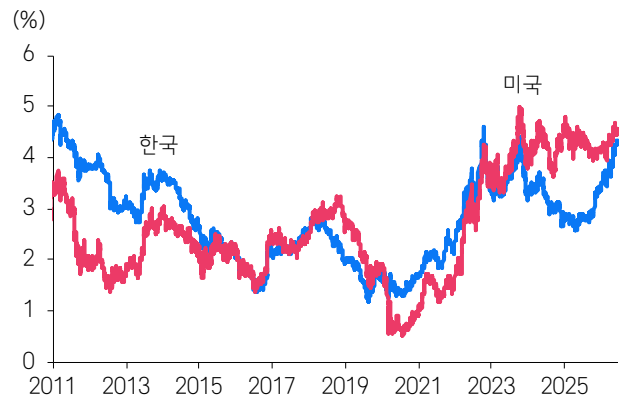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요국 국채 수익률 변화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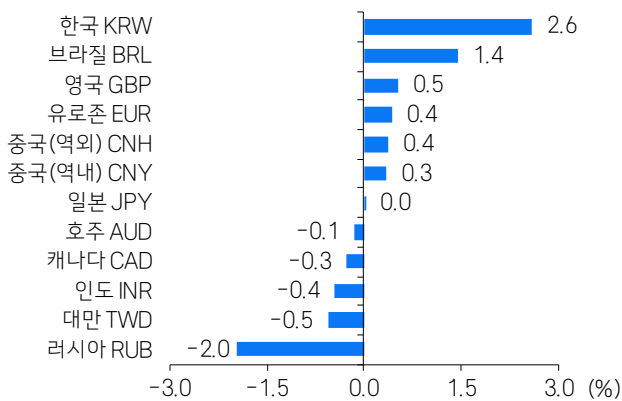
참고: 6월 12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한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절상률 (전주 말 대비)



참고: 6월 12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국제 유가



자료: Bloomberg

주요국 통화정책 update

국가명	정책 금리 (%)	직전 (%)	통화정책 변화일	정책 금리 변화 (bps)		변화 내용
				3개월	1년	
주요국						
미국	3.50~3.75	3.75~4.00	25.12.10	0	(75)	4월 FOMC 및 파월 의장 기자 회견은 3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당분간 "WaitandSee" 모드를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 현재 FOMC 참여자들 대부분의 강한 컨센서스는 이란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dual mandate의 양방향 리스크, 즉, 물가의 상방 리스크와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높아짐에 따라, 당분간 정책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추가 지표들을 확인/평가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 파월 의장도 통화 정책의 변화를 결정하는 데,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강조
유로존	2.25	2.00	26.06.11	25	25	ECB, 6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25bp 인상했으며, 유로존 성장 전망은 하향하고 물가 전망은 상향. ECB가 금리 인상으로 전환한 것은 가격 상승이 에너지에만 그치지 않고, 에너지 외 부문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리 정해진 금리 경로는 없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다소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한국	2.50	2.75	25.05.29	0	0	한국은행, 5월 금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통방문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반면 성장세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영향을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신현승 총재는 기자회견담회에서 금리 인상 방향을 시사했으나 terminalrate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힘
일본	0.75	0.50	25.12.19	0	25	일본은행,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75%로 동결. BOJ는 핵심 소비자물가 전망을 '26년과 '27년 모두 2.6%로 상향조정하며, 노동력 부족에 따른 물가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1월에는 각각 2.2%와 2.1%). 아울러,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장기화, 시 수요 둔화, 외환시장 불안정 등을 전망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음. 오후에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총재의 발언도 마찬가지로 hawkish했음
영국	3.75	4.00	25.12.18	0	(50)	BOE, 4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중앙은행은 중동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전망이 불확실한 것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며, 2%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	1.40	1.50	25.05.08	0	0	중국 인민은행은 3월 양회에서 "적절히 완화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또한, 정책 금리 및 기준을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힘. 다만, "사회의 종합적인 용자 비용을 낮추겠다"는 문구를 "...용자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변경
기타 지역						
멕시코	6.50	6.75	26.05.07	(50)	(200)	멕시코 중앙은행,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27년 2분기 중 물가 목표치 3%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언급. 이번 결정으로 2년 넘게 지속된 인하 사이클을 종료한다고 밝힘
인도	5.25	5.50	25.12.05	0	(25)	인도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총재는 성명서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성장과 물가 모두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으며, 앞으로 성장, 인플레이 흐름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성 언급
브라질	14.50	14.75	26.04.29	(50)	(25)	브라질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에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GDP 성장 둔화에 따른 실물경제 부담을 반영해 금리를 인하했으나,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긴축적이라고 평가
튀르키예	37.00	38.00	26.01.22	0	(900)	튀르키예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통화정책위원회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가 안정화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지정학적 상황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물가상승률 5%를 달성하는 게 최우선임을 밝힘
인도네시아	5.25	4.75	26.05.20	75	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50bp 인상. 이는 '24년 4월 이후 첫 금리 인상이며, 중앙은행 총재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루피아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힘. 또한 금리 인상이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26년 성장률 목표치를 4.9%~5.7%로 유지
호주	4.35	4.10	26.05.05	50	50	호주 중앙은행,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상. 중앙은행 측은 성명서를 통해 국내 경기와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 특히 중동 분쟁 장기화 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단기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
스웨덴	1.75	2.00	25.10.01	0	(50)	스웨덴 중앙은행,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현재 경기 성장세와 물가 모두 전망치를 하회하나, 전쟁으로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시,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
스위스	0.00	0.25	25.06.19	0	(25)	스위스 중앙은행,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몇 분기 동안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스위스프랑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
러시아	14.50	15.00	26.04.24	(100)	(550)	러시아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50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근원 물가 상승률이 아직 둔화되지 않았으며, 러시아 중앙은행 추산 기준 연율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또한 대외환경과 재정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
뉴질랜드	2.25	2.50	25.11.26	0	(100)	뉴질랜드 중앙은행,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통화정책위원회는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의견차가 존재했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향후 금리 인상을 신속하고 큰 폭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힘
캐나다	2.25	2.50	25.10.29	0	(50)	캐나다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총재는 중동 분쟁 지속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와 물가 상승 압력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결정임을 밝힘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

	6월 5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변화율							
							1 week	1 month	3 months	6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주식시장 (지수)														
KOSPI	8,161	7,484	8,097	7,731	7,764	8,418	3.2	10.1	50.8	102.0	188.3	208.6	220.2	99.8
미국 S&P 500	7,384	7,406	7,387	7,267	7,394	7,394	0.1	(0.1)	10.8	8.3	22.3	36.4	70.4	8.0
일본 NIKKEI 225	66,588	64,025	65,417	64,179	64,217	66,443	(0.2)	5.9	22.0	30.7	74.1	70.9	104.9	32.0
영국 FTSE	10,368	10,373	10,227	10,255	10,304	10,304	(0.6)	0.4	(0.0)	6.8	16.0	25.4	36.1	3.8
독일 DAX	24,759	24,616	24,433	24,195	24,210	24,210	(2.2)	1.1	2.6	0.1	1.8	29.9	50.4	(1.1)
중국 상해종합	4,028	3,959	4,010	3,993	3,987	4,050	0.6	(3.9)	(1.9)	4.1	19.0	33.3	25.4	2.0
홍콩 H	8,437	8,341	8,325	8,319	8,217	8,383	(0.6)	(5.6)	(3.6)	(7.7)	(4.0)	31.8	27.3	(6.0)
인도 Sensex	74,243	73,524	73,919	73,983	73,833	73,833	(0.6)	(1.0)	(2.9)	(13.4)	(9.6)	(3.6)	17.7	(13.3)
인도네시아 JCI	5,595	5,342	5,747	5,902	5,886	6,045	8.1	(11.9)	(17.9)	(30.2)	(16.1)	(11.7)	(10.1)	(30.1)
브라질 iBovespa	169,019	168,669	169,813	168,619	171,497	171,497	1.5	(4.9)	(4.3)	6.7	24.5	43.0	46.2	6.4
MSCI World (USD)	4,756	4,756	4,746	4,683	4,746	4,746	(0.2)	(0.1)	8.8	7.7	20.3	35.0	63.3	7.1
MSCI EM (USD)	1,717	1,655	1,712	1,667	1,665	1,665	(3.1)	(2.0)	11.6	19.7	38.4	55.8	65.9	18.4
채권금리 (%)														
한국 국채 3년	3.88	3.93	3.86	3.88	3.91	3.91	3	23	64	82	148	61	41	96
한국 국채 10년	4.25	4.35	4.27	4.27	4.32	4.32	6	25	67	90	150	95	74	93
미국 국채 2년	4.15	4.16	4.12	4.14	4.06	4.07	(8)	7	33	54	16	(69)	(51)	59
미국 국채 10년	4.53	4.56	4.52	4.55	4.46	4.47	(7)	0	20	28	11	15	73	30
일본 국채 10년	2.67	2.73	2.68	2.69	2.69	2.63	(4)	7	45	68	118	165	220	57
독일 국채 10년	3.04	3.06	3.04	3.08	3.03	3.03	(1)	(7)	8	18	55	50	64	18
중국 국채 10년	1.72	1.73	1.74	1.74	1.75	1.74	2	(2)	(8)	(10)	4	(57)	(95)	(11)
인도 국채 10년	6.98	6.95	6.91	6.94	6.92	6.90	(8)	(15)	23	31	55	(11)	(12)	32
인도네시아 국채 10년	6.88	7.28	7.41	7.34	7.45	7.42	54	71	69	123	73	39	110	135
브라질 국채 10년	14.85	14.85	14.78	14.81	14.47	14.47	(39)	40	39	83	47	219	329	73
JPM EMBI Global	215.2	216.4	218.8	218.3	221.6	221.6	6	7	(12)	(10)	(73)	(101)	(159)	(10)
장단기 금리차 (%)														
미국 국채 10년-2년	0.38	0.40	0.40	0.41	0.40	0.40	2	(7)	(12)	(26)	(5)	83	124	(30)
일본 국채 10년-2년	1.26	1.31	1.26	1.27	1.27	1.22	(4)	6	30	33	52	58	72	33
독일 국채 10년-2년	0.35	0.35	0.38	0.36	0.35	0.35	1	(3)	(19)	(35)	(31)	78	88	(38)
중국 국채 10년-2년	0.45	0.44	0.45	0.45	0.44	0.43	(2)	(2)	(1)	(2)	17	1	(2)	(2)
한국 국채 10년-3년	0.37	0.42	0.41	0.39	0.41	0.41	4	2	3	8	1	33	33	(2)

(다음 페이지에 계속)

주요 금융시장 동향 (2/2)

	6월 5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변화율 (% bps)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CDS Premium (bps)														
미국 (5년)	42.5	42.5	42.5	42.5	42.5	42.5	0	1	2	12	(5)	3	11	13
일본 (5년)	16.6	16.6	16.6	16.6	16.6	16.6	(0)	0	1	1	4	2	6	2
독일 (5년)	23.1	23.9	23.9	23.6	23.6	23.6	0	(1)	(4)	1	(4)	(12)	(13)	2
중국 (5년)	4.0	4.0	4.0	4.0	4.0	4.0	0	(1)	1	(1)	(2)	(2)	(7)	0
한국 (5년)	40.8	41.3	41.3	40.6	40.6	40.6	(0)	(1)	(7)	(3)	(4)	(25)	(22)	(3)
인도네시아 (5년)	96.8	101.7	101.7	96.5	96.5	96.5	(0)	12	6	24	22	23	12	28
브라질 (5년)	122.9	124.1	124.1	124.1	128.2	128.2	5	9	(2)	(9)	(21)	(25)	(64)	(10)
멕시코 (5년)	84.7	84.9	84.9	85.2	85.2	85.2	1	(1)	(9)	(6)	(22)	(31)	(21)	(5)
상품가격														
CRB지수	376.4	377.4	372.3	373.4	369.8	369.8	(1.8)	(8.7)	1.3	24.0	22.1	25.3	43.9	23.8
WTI (달러/배럴)	90.5	91.3	88.2	90.0	87.7	86.5	(4.5)	(15.4)	(9.7)	50.5	27.1	10.1	28.8	50.6
두바이유 (달러/배럴)	90.5	91.2	89.4	89.9	88.7	88.7	(1.9)	(14.5)	(27.9)	43.0	31.6	8.6	22.6	43.0
LME 구리 (달러/톤)	13,520	13,616	13,615	13,516	13,483	13,483	(0.3)	(3.8)	3.7	17.1	39.0	35.6	62.2	8.5
금 (달러/oz)	4,328	4,330	4,261	4,072	4,212	4,201	(3.0)	(10.9)	(17.3)	(2.3)	24.1	80.7	114.5	(2.8)
은 (달러/oz)	67.83	68.19	65.36	63.36	67.31	67.29	(0.8)	(22.2)	(19.7)	8.6	85.2	126.4	179.8	(6.1)
옥수수 (센트/부셸)	417.5	418.8	419.5	419.0	411.8	412.3	(1.3)	(11.8)	(8.0)	(4.5)	(6.0)	(9.2)	(33.2)	(6.4)
소맥 (센트/부셸)	580.0	583.3	585.3	587.5	586.8	590.5	1.8	(11.2)	(0.3)	10.5	12.2	(4.3)	(6.8)	16.5
달러화 대비 환율														
한국 원화	1,560	1,528	1,528	1,522	1,531	1,520	2.6	(1.7)	(2.1)	(2.8)	(10.7)	(9.4)	(15.2)	(5.3)
일본 엔화	160.29	160.16	160.36	160.55	159.93	160.22	0.0	(1.6)	(0.5)	(2.8)	(10.4)	(2.2)	(12.9)	(2.2)
유로화	1.152	1.153	1.154	1.154	1.158	1.157	0.5	(1.4)	0.5	(1.4)	(0.1)	7.1	7.6	(1.5)
중국 위안화 (역내)	6.788	6.783	6.775	6.775	6.775	6.764	0.4	0.5	1.7	4.3	6.0	7.1	5.7	3.3
중국 위안화 (역외)	6.791	6.785	6.779	6.782	6.764	6.763	0.4	0.4	1.7	4.3	6.1	7.4	5.8	3.1
인도 루피화	94.94	95.71	95.36	95.27	95.76	95.22	(0.3)	0.4	(3.2)	(5.0)	(10.1)	(12.3)	(13.4)	(5.5)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8,020	18,178	18,060	17,953	17,993	17,908	0.6	(2.3)	(5.7)	(7.1)	(9.3)	(9.0)	(17.0)	(6.8)
브라질 헤알화	5.169	5.193	5.173	5.186	5.095	5.095	1.4	(4.0)	3.0	6.3	8.7	6.3	(4.5)	7.5
달러 인덱스	100.07	100.05	99.91	99.95	99.86	99.75	(0.3)	1.5	0.0	1.4	1.9	(4.7)	(3.8)	1.5
아시아 달러 인덱스	91.6	91.7	91.8	91.8	91.7	92.0	0.4	(0.3)	(0.2)	0.5	(1.0)	1.6	(0.8)	(0.3)
JPM 이머징 통화지수	46.99	46.99	47.11	47.11	47.43	47.43	0.9	(0.5)	2.3	2.3	3.4	3.0	(4.6)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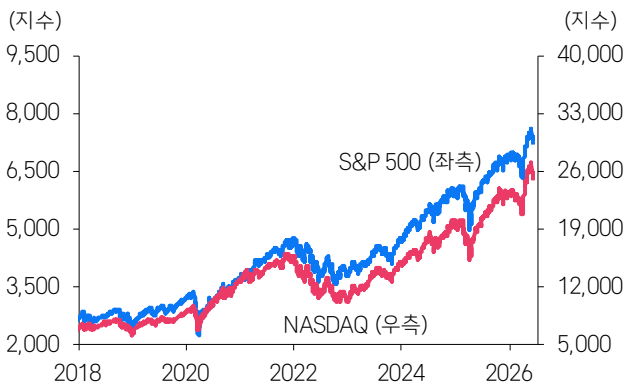
참고: 6월 12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주요 금융시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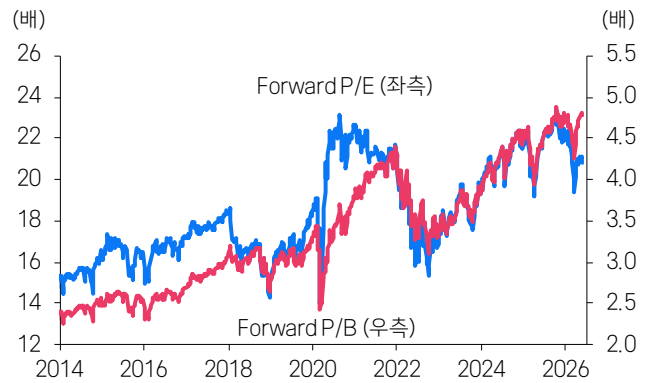
>> 미국

S&P 500과 NASDAQ 명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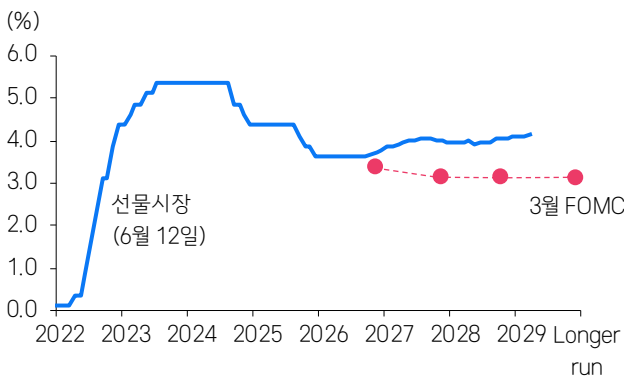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P 500: Forward P/E와 P/B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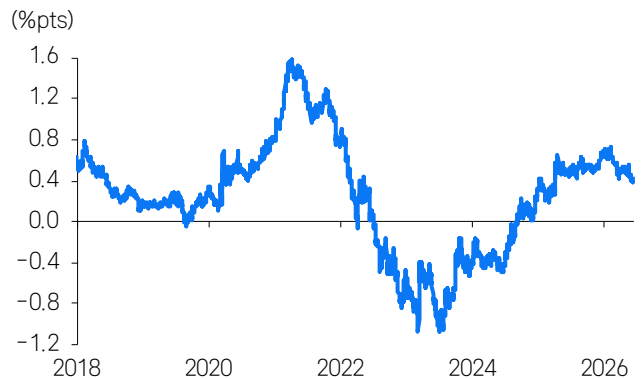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기준 금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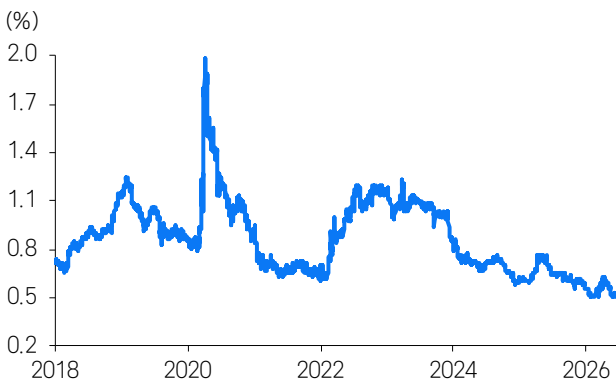
참고: 발표된 기준 금리는 목표 범위의 중간값 기입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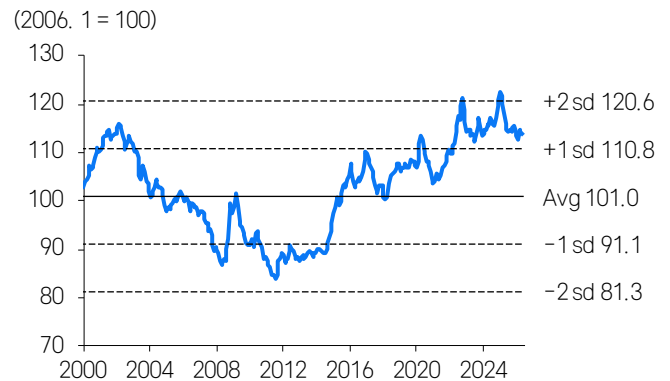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회사채 Baa - Aaa 스프레드 추이



자료: Moody's,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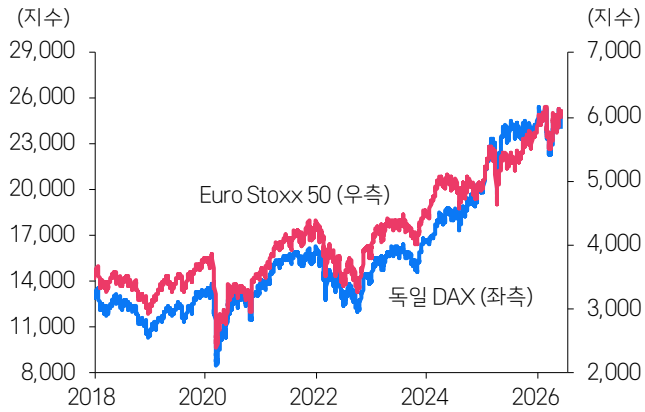
Fed 달러 지수 추이



자료: Federal Reserv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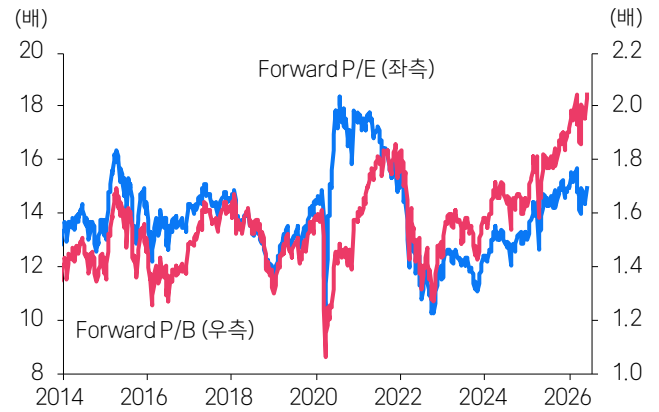
>> 유럽

독일 DAX 지수와 Euro Stoxx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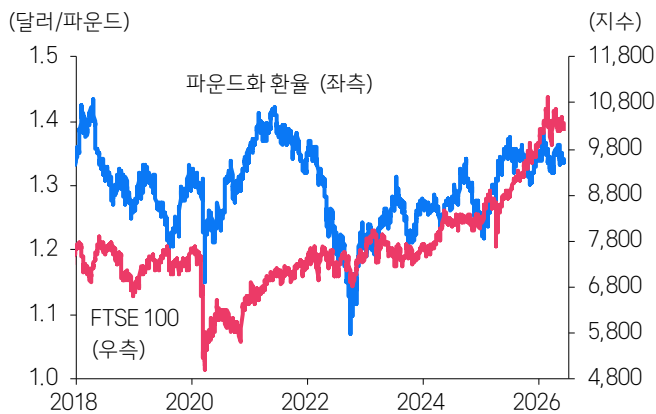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EMU 12개월 forward P/E와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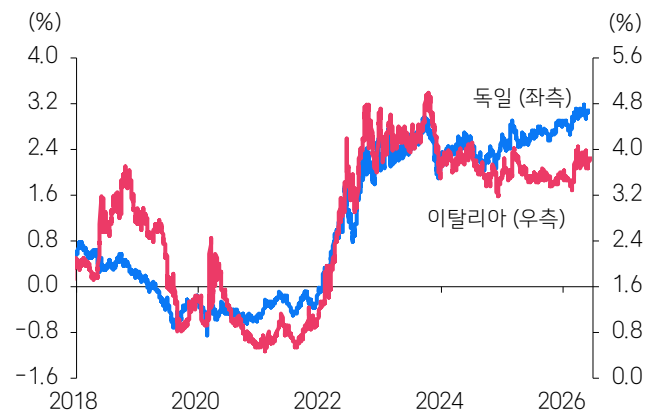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영국 FTSE100과 파운드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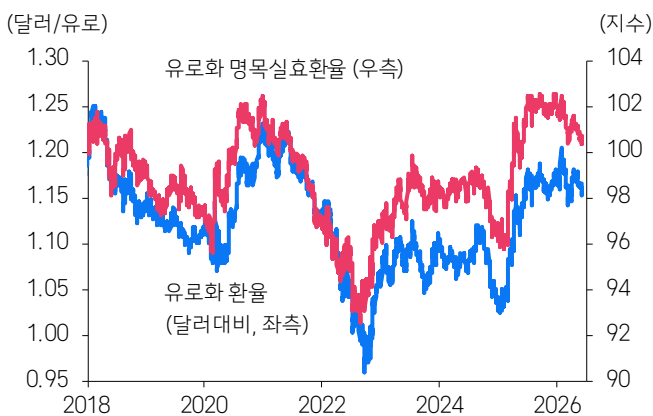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독일,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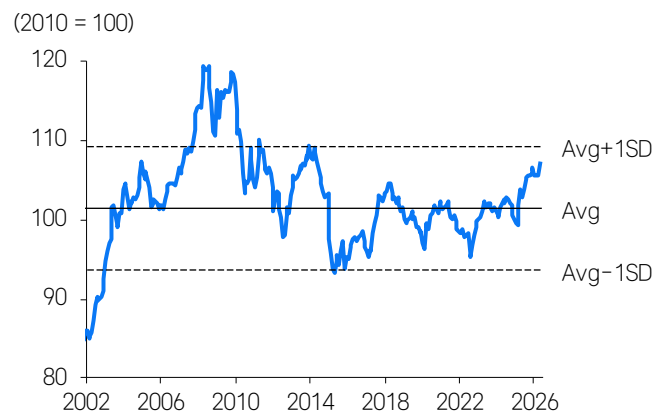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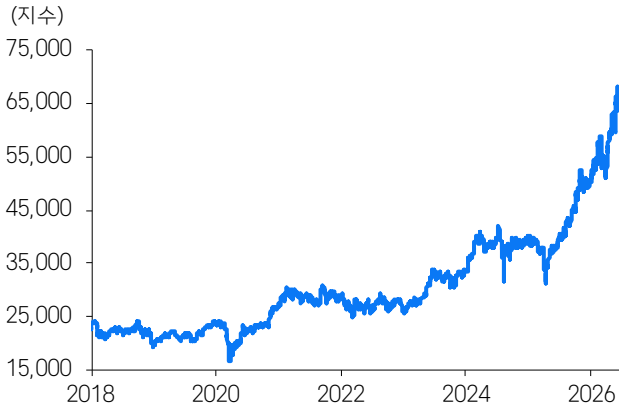
유로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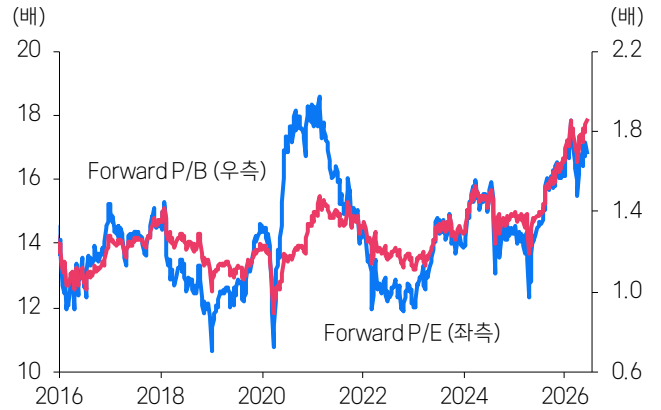
>> 일본

일본 NIKKEI225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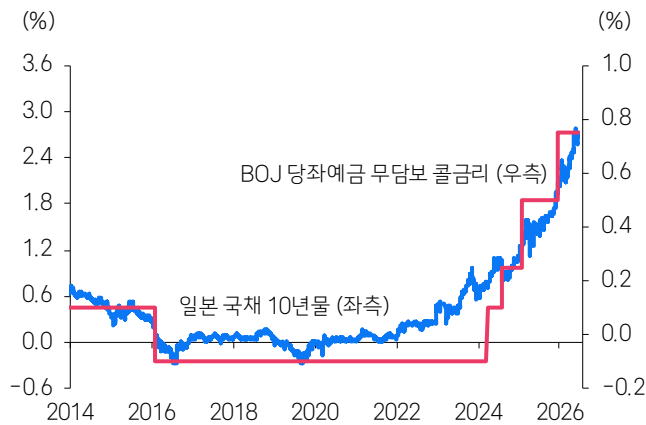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Japan: Forward P/E와 P/B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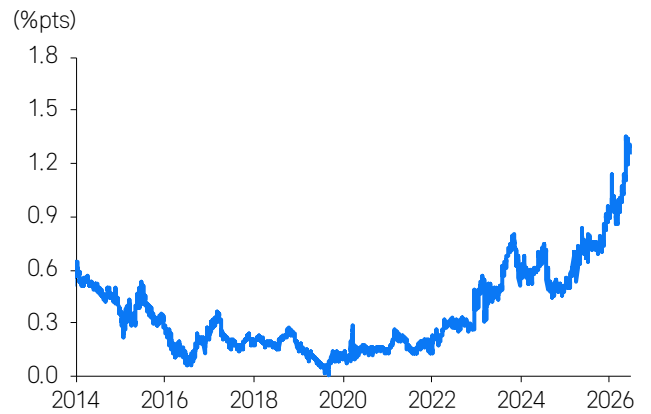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BOJ 정책 금리, 일본 국채 10년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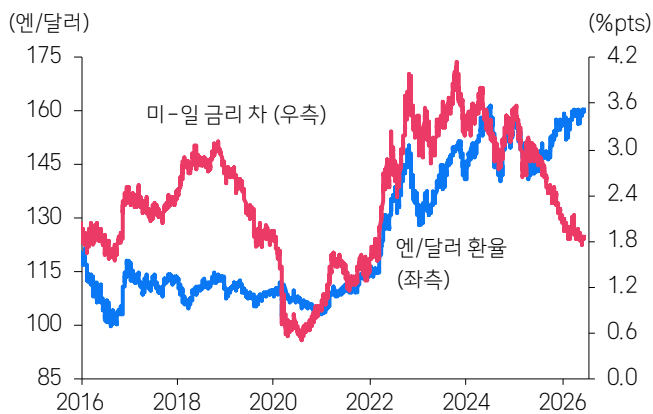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일본 국채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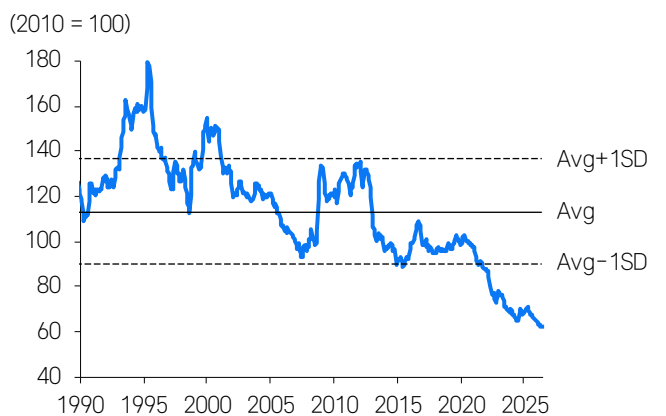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일 금리 차와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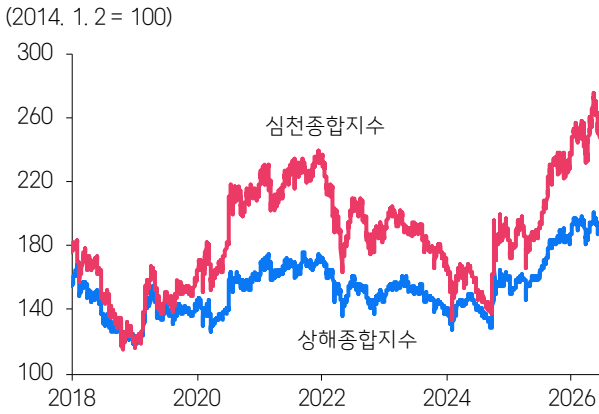
엔화 실질 실효 환율



자료: BI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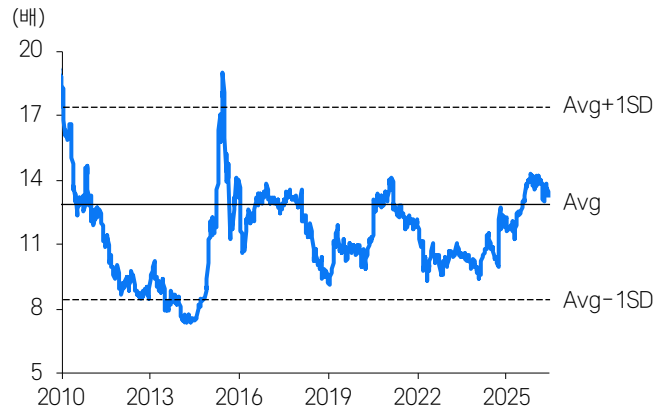
>> 중국

중국 상해 및 심천종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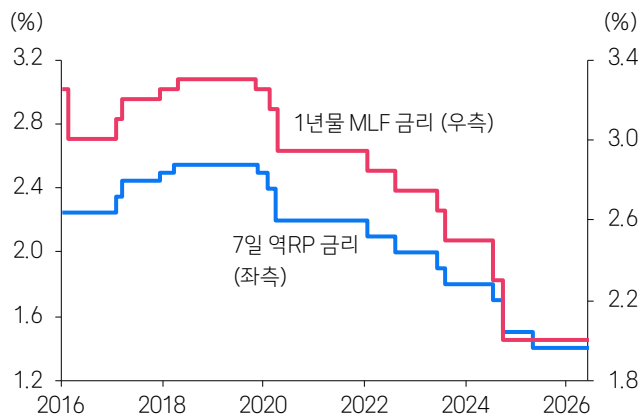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해종합 지수 Forward P/E Valuation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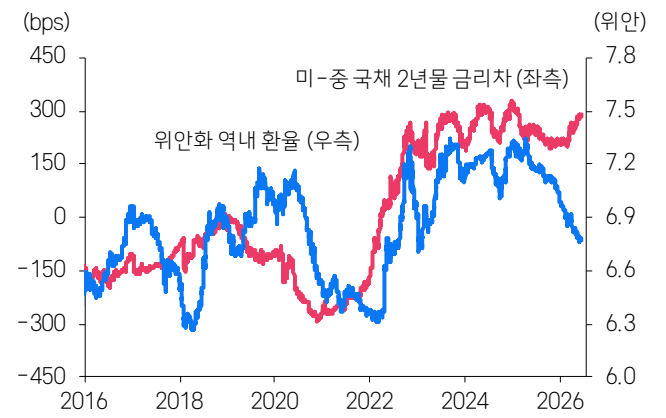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1년물 MLF 금리와 7일물 역RP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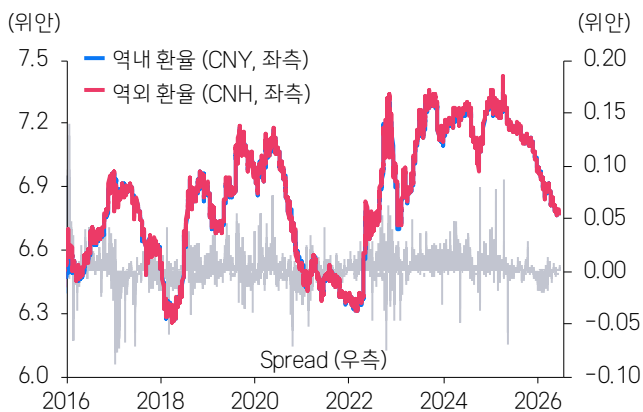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중 금리 차와 위안화 역내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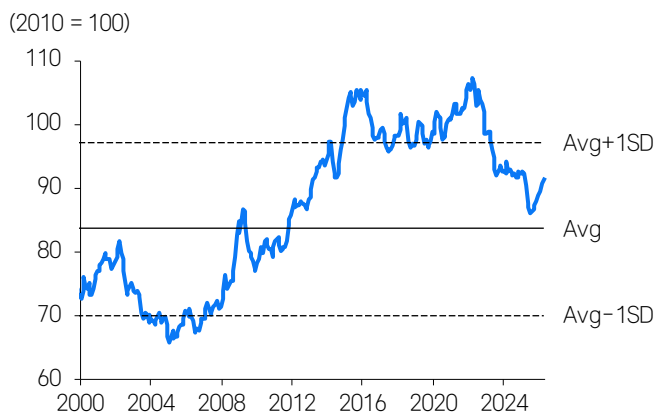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위안화 환율 추이: 역내(CNY) vs. 역외(CNH)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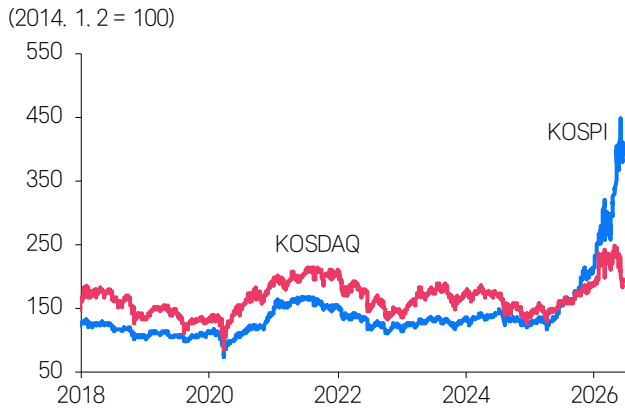
위안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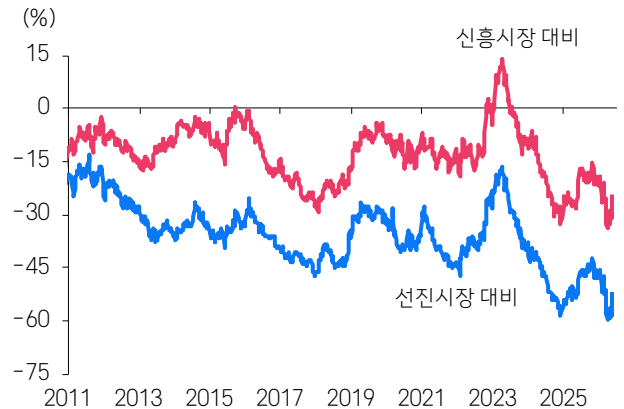
>> 한국

한국 KOSPI와 KOSDAQ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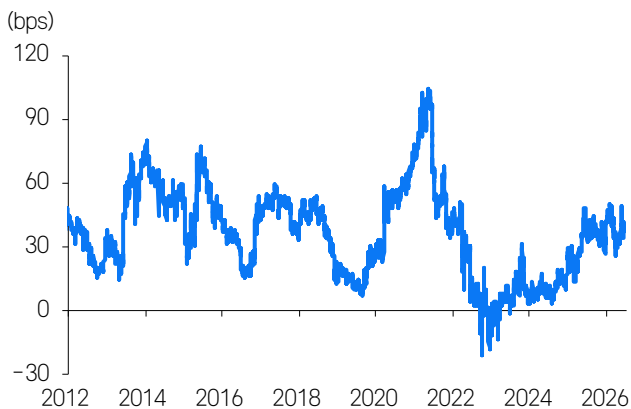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OSPI Forward P/E 밸류에이션 할증/할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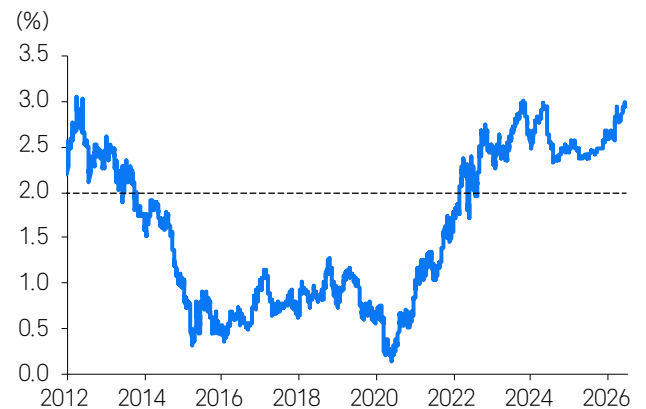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장단기 금리 차 (국고 10년-국고 3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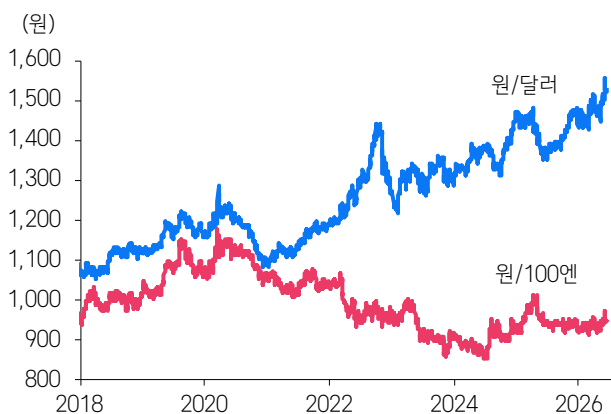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10년 BE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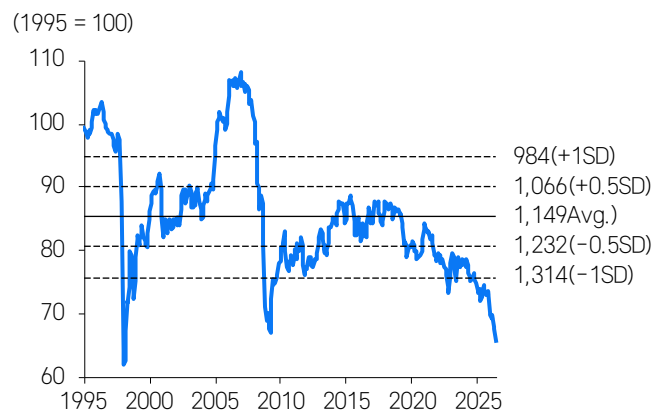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와 원/100엔 환율



자료: Bloomberg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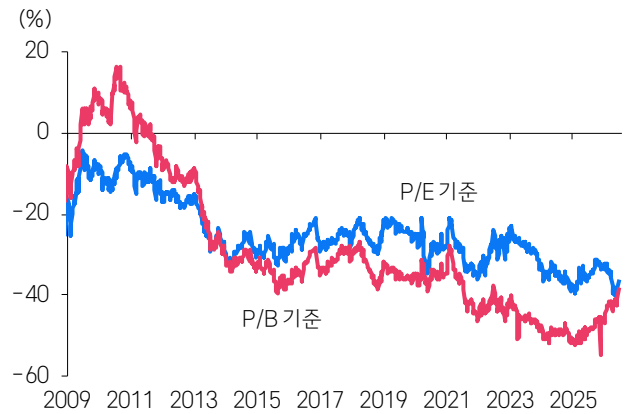
>> **신흥국**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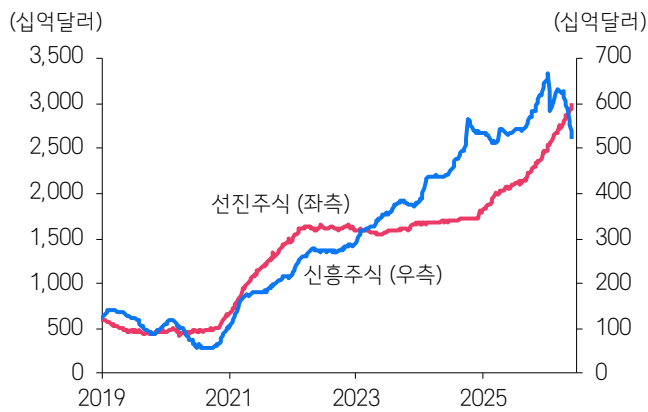
참고: MSCIUSD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할증/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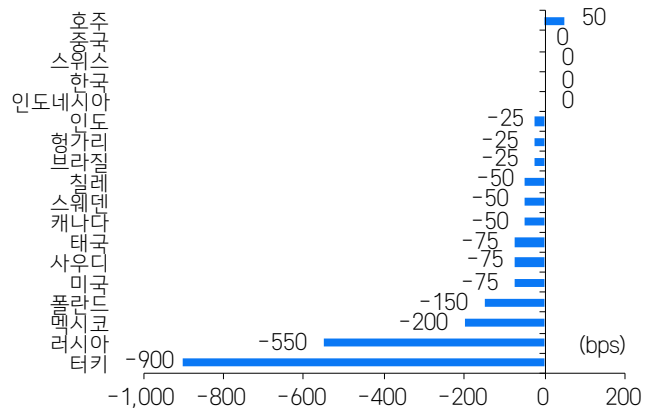
참고: 12개월 forward P/E 및 P/B,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신흥 시장 주식형 펀드 누적 Fund Flow



자료: EPFR, 삼성증권

주요국 정책 금리 변화 (12개월 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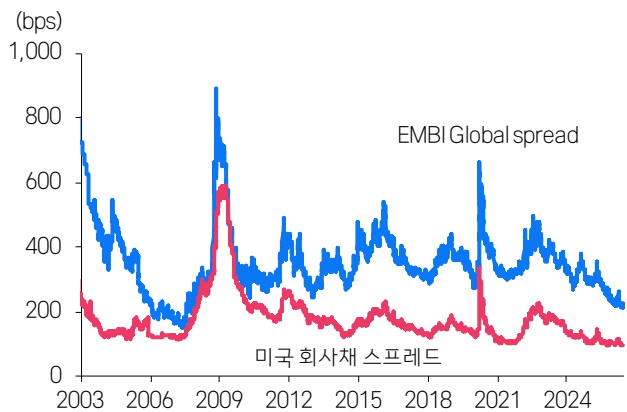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JPMorgan Emerging Currency Index



자료: JPMorgan,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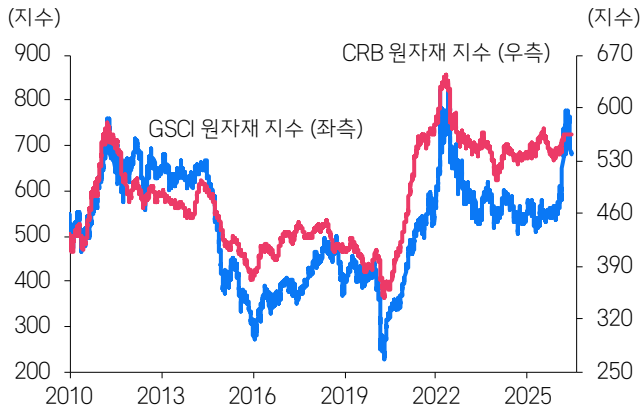
EMBI Spread와 미국 회사채(BBB)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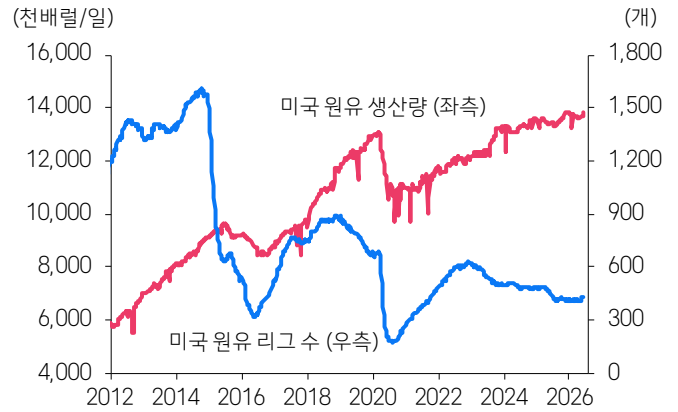
>> 주요 원자재

GSCI Commodity Index / CRB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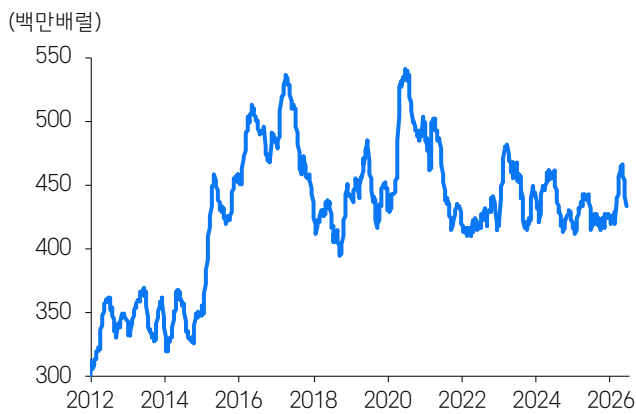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원유 리그 수와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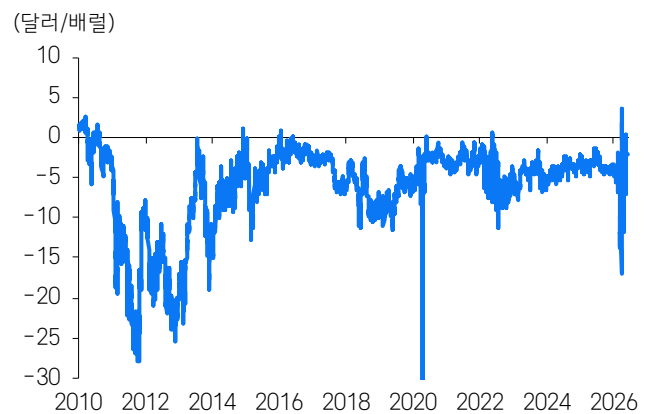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Baker Hughes

미국 원유 재고량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WTI/Brent 유가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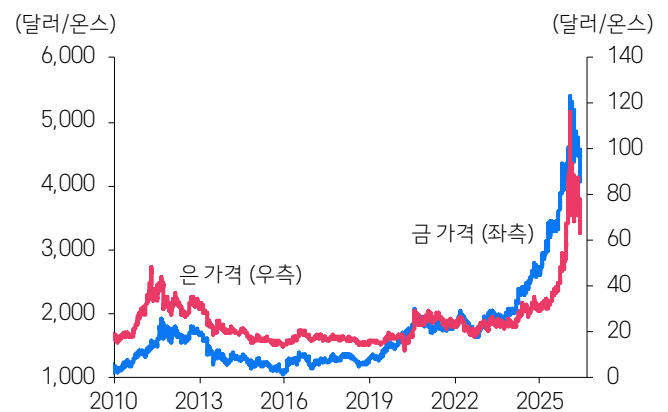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구리 및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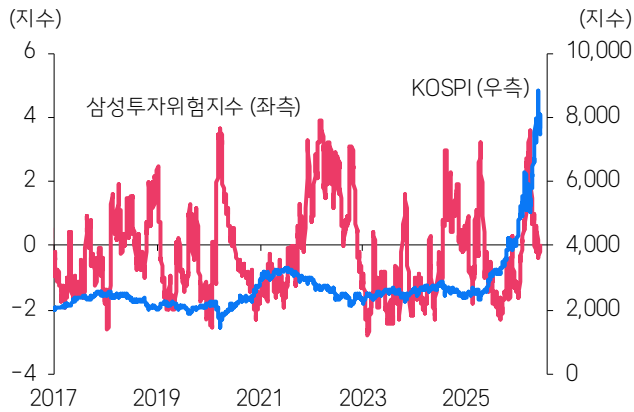
금/은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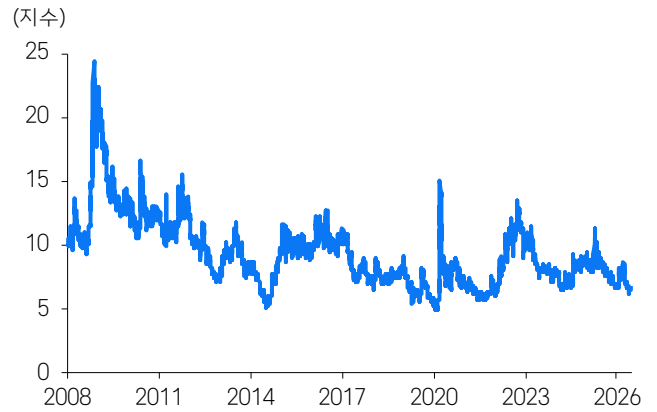
>> 변동성 지표와 CDS Premium

삼성 투자위험 지수(Samsung Risk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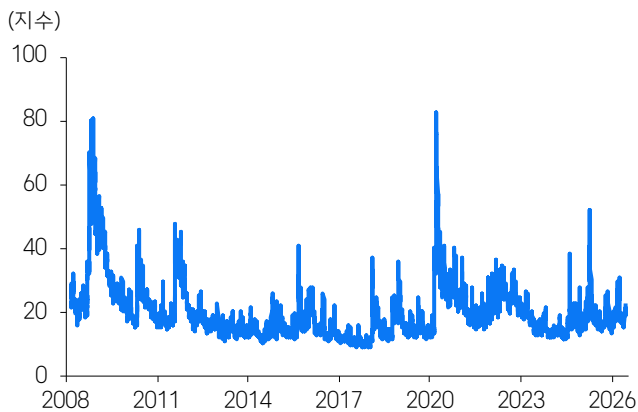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Bloomberg, 삼성증권

FX Volatil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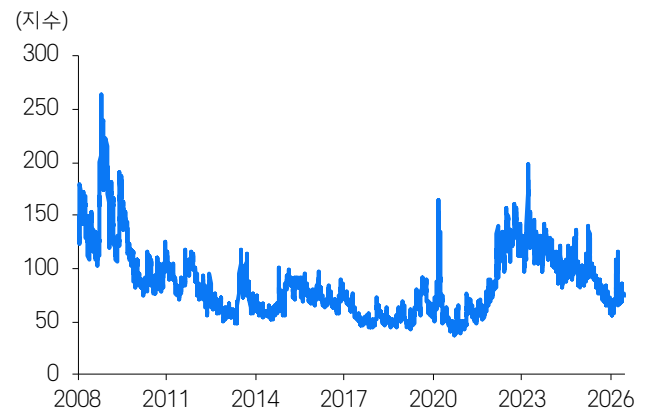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VI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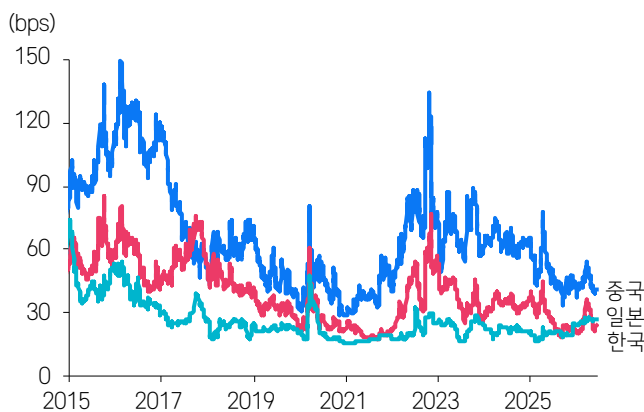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ov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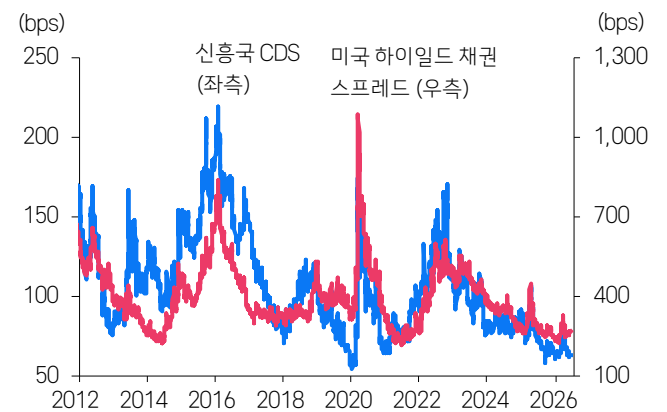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 중국, 일본 CDS premium



참고: 5년물 기준
자료: Refinitiv

신흥국 CDS와 미국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



참고: S&P Global EM CDX 구성국 중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제외, 각국 CDS를 명목 GDP로 가중 평균하였음. 2022년 3월부터 러시아 제외
자료: Refinitiv,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